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관신뢰감과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와 경제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원 준

(경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대구시와 경북지역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관신뢰도와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 그리고 경제수준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인과관계에 대한 '경제수준'에 따른 비교를 위한 다집단 분석, 계수차이검증에 근거한 구조동일성 모형검증, 다중매개검증,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8, Amos 19, Mplus 6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각각 '기관신뢰도', '자기수용' 그리고 '기부지속의도'에 모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다. (2) '기관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에 정적 직접효과와,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3) '자기수용감'은 '기부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기관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경제형편이 저조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아, '경제수준'의 조절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기부행위를 통해 경험한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 지속의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이 자기 수용감 증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기여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기부자들을 자원제공자로만 보던 시각에서 기부행위를 통한 수혜자(beneficiary)로까지 시각을 확대하였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부효용, 기부지속의도, 사회복지기관, 자기 수용감, 신뢰도, 경제수준

* 이 논문은 이원준의 박사학위논문(2012. 12)을 요약·정리한 것임

1. 문제제기

개인기부금 동원은 사회복지 조직들의 활동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복지재원마련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최근 개인기부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한국조사연구원, 2007; 정민주, 2008: 1에서 재인용; 아름다운재단 자료집, 2012). 규제와 통제가 더 많은 정부지원금에 비해, 개인기부금은 기관의 자율성이 잘 반영된 사업을 운영하는데 훨씬 용이한 측면이 있다. 전체 예산중에 민간자원, 특히 개인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일수록,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강철희 정무성, 2002; 변은지, 2010: 1에서 재인용)는 개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해주고 있다.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부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부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post-campaign)이 사회복지조직의 중요한 활동(Rosso, 1991; 정호영, 2006: 26에서 재인용)이다. 후원중단으로 인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후원을 중단할 경우, 기관은 이중적 손실을 입게 된다(조소라, 1995). 새로운 후원자 발굴이 기존 후원자를 중심으로 확장(박종미, 1995; 위정순, 2003: 42)되고 있다는 사실과, 기부중단이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부자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신뢰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정정호 김미희, 2008: 242).

선행연구(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박종미, 1995; 최현영, 1999; 이정은, 2005; 정호영, 2006; Sargeant and Kaehler, 1998; Sargeant, 2001: 77; Burk, 2003; Sargeant and Jay, 2004: 171; Sargeant and Woodliff, 2007: 48에서 재인용)에서 높은 기부중단비율이 보고되고 있어, 이 문제는 후원사업에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의 경제사정이 기부중단의 중요한 이유(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박종미, 1995; 서혜경, 2001)이긴 하지만, 후원활동에 대한 책임감 및 관심부족(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후원활동에 대한 보상결여, 기관관리에 대한 불만족 및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기관관련 요인들도 기부행동 및 기부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강철희, 1998; 김근령, 2000; 서혜경, 2001: 47; 김유나, 2002; 오혜진, 2002; 한지선, 2004; 고이경, 2004; 이정은, 2005; 정호영, 2006; 김해숙, 2008; 김준희, 2009; 강철희 외, 2010; 변은지, 2010; 황용진, 2011; Sargeant and Woodliffe, 2005; 2007)에서 논의되어 왔다.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지속 가능성은 이들의 기부동기 및 기대가 후원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한 효용감(utility)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기부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benefit)의 지각에 의해서 동 기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사회교환 이론 관점에서 교환효용은 기부동기 및 기부지속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김해숙, 2008: 51; Sargeant et al., 2005: 4). 기부효용은 정서적 만족 및 보람과 같은 정서적 효용뿐만 아니라, 세금공제혜택, 타인들로부터의 인정, 체면 및 위상 상승 등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효용 등 다양한 특성을 포함한다.

Sargeant 외(2005: 9)는 '정서적 효용감'과 함께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기부기관에 대한 헌신

(commitment), 즉 “기부자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기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일체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Sargeant 외(2005)의 연구를 토대로 한 정호영(2006)의 연구에서도 기관 신뢰도가 기부기관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효용감(emotional utility)은 기부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세금공제혜택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편익(benefit)등에 기초한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헌신에 가장 강한 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Sargeant 외(2005)와 정호영(2006)의 상충된 연구결과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규범 및 가치의 차이가 기부행위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이 두 연구는 기부효용 및 기관의 신뢰도가 각각 개인 기부자의 기부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밝혔지만, 기부효용이 기관신뢰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규명이 없었다.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하는 편익 및 보상인 기부효용은 자신이 기부하는 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기부기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기부행위를 통해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기부자의 기관신뢰도는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정서적, 가시적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의한 매개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부효용감은 기부자로서의 정체감과 긍정적 자아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긍정적 자아감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기부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현금/현물)을 기꺼이 내어 줄 수 있는 ‘기부기관은 기부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의미 있는 대상’(significant object)이다. 기부효용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기부기관은 개인기부자에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부행위를 통한 긍정적인 체험은 기부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인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기부자가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의 자아 개념은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기부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수용감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효용감을 통해 기관신뢰감과 자기수용감이 증진되면서, 기부지속 가능성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이 주로 후원자 발굴 및 모금액 달성에만 주력하면서 기부자들의 심리적 안녕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은 미진하였다.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을 증진하고, 이들이 심리적인 안녕감 및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또한 기부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며, 후원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를 통해 개인기부자들이 자기수용감을 높일 수 있다면, 개인 기부자들은 자신을 사회복지조직에 자원을 주는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중 정체성은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행위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순환적 순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부자를 일방적인 제공자로만 보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기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가시적 보상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상호호혜성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시각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부효

용(정호영, 2006; 김해숙, 2008; Sargeant et al., 2005)과 기부지속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 및 성장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기부관련 선행연구(최진균, 1991; 조소라, 1995; 박중미, 1995; 서혜경, 2001)은 기부행위 및 기부지속과 기부자의 경제형편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인과관계규명이 가능한 구조모형(SEM)에 기초한 기부효용이 기부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몇편의 연구들(정호영, 2006; 김해숙, 2008)에서도 기부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자의 경제수준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었거나, 경제수준을 단순 통제변수로만 분석한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 기부자의 기부형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전술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부자들이 체험한 기부효용이 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 기관신뢰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뿐 만 아니라, 기관신뢰감 및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 개인기부자의 경제형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기부개념 및 유형

Schervish(1993: 224)는 '기부'를 "타인을 보살피게 되는 내심에서 우리나라는 자선적 마음의 요구(charitable impulse)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방침 및 활동"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신의 물질(현금, 현물) 또는 시간 및 노력(자원봉사, 재능봉사)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기부는 참여형태에 따라서, 기관의 재정 및 물적 자원의 결핍을 지원해주는 '물질적 기부'와, 시간을 내어 기관의 업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의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즉 '시간적 기부'로 분류할 수 있다(유수진, 2001: 34; 정수영, 2005: 18). 기부 주체는 개인만이 아닌, 단체 및 조직(기관)도 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2000년 이전에는 법인(단체)기부금의 비중이 개인기부보다 훨씬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인기부금이 사회복지조직의 복지재원 마련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기업 기부액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사회복지조직에서 대부분의 기부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기부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한국조사연구원, 2007; 정민주, 2008: 1에서 재인용), 많은 사회복지기관이 개인의 후원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공공자원의 부족과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개인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2) 기부지속의 중요성

사회복지조직에서 기부중단자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기부중단율이 보고되고 있다(박종미, 1995; 조소라, 1995; 박정임, 1996; 최현영, 1999; 이정은, 2005; Sargeant and Kaehler, 1998; Burk, 2003; Sargeant and Woodliff, 2007: 48). 원치민(2002)은 보건복지부(1997)와 최진균(1991)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개별기관의 후원자들 중 50%~80%가 1년~2년 사이의 짧은 기간에 후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원치민, 2002: 2에서 재인용). Courtney(2002)는 모금(fundraising)을 기부자의 재정 지원을 찾아내고(identifying), 배양하고(cultivating), 안정화시키는(securing)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신규 기부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후속 캠페인(post-campaign)의 중요성을 잘 반영해준다. 사회복지조직에서 기부중단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신규 기부자 발굴보다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비용의 효율성(Rosenberg and Czepiel, 1984)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기존 후원자가 신규후원자 영입의 중요한 자원(박종미, 1995; 위정순, 2003: 42)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설득력을 가진다.

3) 기부효용이론

(1) 가시적 효용감

Sargeant 외(2005)는 기부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혜택 및 편익을 '효용'으로 유형화하여 기부효용 개념을 소개하였다. Sargeant 외(2005:4)는 기부의 '가시적 효용'(demonstrable utility)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고려의 결과로서 기부과정이 관련될 때와, 기부자가 속해 있는 사회집단에서 타인들로부터의 인지가 기부행위의 동기가 될 때이다. 후자는 기부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타적 모델의 대안적 모델(alternative model)로 제시한 Hollander(1990)의 '가치 있는 사회적 인정'(valued social approval), Glazer와 Konrad(1996)의 '알림홍보효과'(signaling effect)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가시적 효용감은 세금혜택, 기부기관으로부터 유용한 자료를 송부받음, 명성 및 위상, 타인의 인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시적 효용 관점에서 보면,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보다 많은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자가 기부행위를 통해 가시적 효용감을 체험할수록, 기부기관에 대해 한층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자에게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서적 효용감

Andreoni(2001)는 기부자들이 기부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가시적인 이익보다는 기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경험 때문에 자선 기부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Sargeant 외(2005:3)는 '정서적 효용'(emotional utility)이라 명명하였다. 정서적 효용감은 Andreoni(1989)가 기부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한 '온광효과'(warm glow effect)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온광효과는 기부행위로부터 얻는 심리적인 '호뭇함', '기쁨'과 같은 순수한 내적 만족의 효과이다.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서 느끼는 호뭇함, 심리적 만족과 같은 좋은 느낌을 갖기 원하거나, 도움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죄책감, 자존감 손상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다. 정서적 효용감은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감정이입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부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와 같이 선행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과 자책감에서 자유로우면서 심리적으로 활기를 가질 수 있다. 정서적 동기가 강하여 기부행위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정서적 효용감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고, 이들의 경우 기부행위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보상보다도 정서적인 효용이 클 때, 기부를 지속하려는 의향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부를 통해 체험하는 정서적 효용감이 높을 때, 기부기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도 증진될 수 있다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4) 자기수용감

'자기수용'(self-acceptance)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Maccines, 2006). 자아존중감은 실제적 유능감과 능력에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김해숙, 2008: 35).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수용'은 '자아존중감'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Rogers는 '자기수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였다(이수연, 1999: 5에서 재인용). 자기수용감은 '자기존중감' 향상(박미영, 1999: 이수연, 1999: 6에서 재인용; Rogers and Dymond, 1954)과 '자기성장'(Ryff and Keyes, 1995: 721)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적인 동인이라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Ryff(1989: 1072)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주는 특성이 자기수용임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Chamberlain과 Haaga(2001)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경향성과 불안정 자존감이 낮고,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고 밝혔고, Maccines(2006)도 자기수용과 심리적 건강과의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이정민, 2009: 17 재인용). 종합해보면, 자기수용은 진정한 의미에서 견고한 자기존중감을 갖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심리적 안녕감과 개인성장에 핵심적인 구성소임을 알 수 있다. Clary와 Snyder(1991)는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자신의 내적 성장과 관련된 이해기능'등을 소개하면서, 자기존중 및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기부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타인을 위해 베풀고 봉사한다는 내면적 만족과 보람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가 강화될 수 있다(황용진, 2011: 11; Haggberg, 1992). 기부행위를 통한 긍정적인 체험(효용감)이 기부자의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자의 긍정적인 자아감은 기부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기여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기부자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은 기부행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기요인인 동시에 결과요인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5) 기관신뢰도

신뢰성은 관계성을 유지시키는데 핵심개념이다(Deusch, 1958: 최상진 외, 2005: 2에서 재인용: Hosmer, 1995). 신뢰의 문제는 기관(단체)의 정직성, 공정함, 성실함과 연관된다(김유경, 2003: 정호영, 2006: 36에서 재인용: Shelley and Polonsky, 2001). 김준희(2009: 328)는 기관신뢰의 조작적 정의를 후원기관의 경영능력, 투명능력, 적절한 후원활동, 후원금 목적의 정직성을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김해숙(2008: 35)은 기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부자들의 자선 및 복지 조직의 능력에 대한 믿음, 투명성에 대한 믿음, 수혜자에 대한 봉사 수행에 대한 믿음, 기부금 사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신뢰는 자선단체와 기부자의 교환관계에서 불확실성, 취약성, 위험성 등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Shabbir et al., 2007), 성공적인 모금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정되고 있다(Morgan and Hunt, 1994: 김준희, 2009: 327에서 재인용). 기부활동을 통한 기부자의 긍정적인 체험들을 통해 기부자가 기부기관에 대해 느끼는 신뢰는, 친사회적 활동인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부기관은 기부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대상(타자)'이 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타자와의 신뢰적인 관계를 체험하면서, 개인 기부자가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부효용감, 기관신뢰, 그리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은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지닌다. 개인 기부자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기부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기관신뢰도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6)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부행위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다. 이러한 개인의 규범적 행위는 '정체성 이론'(Stryker, 1968; McCall and Simmons 1978) 및 '사회정체성이론'(Tajfel and Turner 1979; Turner, 1982: 1985)에서 이해할 수 있다. Sargeant(1999)의 연구에서는 기부 중단 의 가장 큰 이유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고되었다. 원치민(2002: 11)은 소득과 기부지속 가능성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안정적인 직장과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후원을 지속할 확률이 높고(조소라, 1995; 강철희, 1998; 장명인, 1998; 최현영, 1999), 소득과 기부가 정비례하기 보다는 역U자 형태를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소득이 후원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상충된 보고(서혜경, 2001; 위정순, 2003)도 있어, 선행연구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있다. 객관적인 소득규모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도, 지출규모나 물질에 대한 개인의 기대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경제형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소득'규모 자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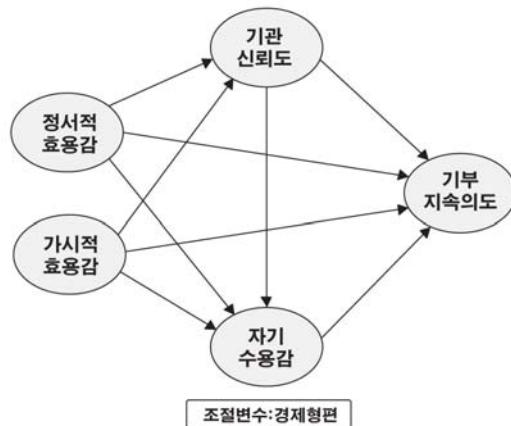
다는 개인 기부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경제형편'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는 것이 기부자의 기부지속여부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탐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부지속에 경제형편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을 경제형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유의하게 조절(moderating)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1. 기부를 통해 경험한 기부자의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기부를 통해 경험한 기부자의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자의 자기수용감 및 기관 신뢰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가?
3. 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자기수용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4. 기부를 통해 경험한 기부자의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자기수용감에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가?
5. 기부자의 경제형편은 모형에 설정한 각 경로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자료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 대구광역시와 경북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의 후원자들로 사전 협조에 동의한 29개 기관을 중심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기관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 및 물품을 후원하는 개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발송 및 회수는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조사를 하였다. 임의표집방법에 의해 약 6000부를 배부하여 그 중에 1292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76부를 제외하고 1116부의 자료를 얻어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8월초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3)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1) 기부지속의도

‘기부지속의도’는 “기부자가 기부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정도”이다. 단순히 기부 지속여부만을 묻지 않고, 기부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 기부헌신에 대한 태도들을 함께 파악하였다. ‘기부지속의도’의 척도문항은 후원자가 현재 본인이 후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계지속, 기부지속, 증액의도를 평가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해숙(2008: 89)의 ‘관계지속의도’ 척도와 변은지(2010: 43)의 ‘충성도’ 척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부지속의도 척도는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은 수록 후원지속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805 이었다.

(2)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후원자가 기부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기부효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서적 기부효용감’과 ‘가시적 기부효용감’을 포함하였다. ‘정서적 효용감’은 “기부를 통하여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때문에 얻는 효용감”을 말한다. ‘정서적 효용감 척도’는 기부에 참여하면서 기부자가 경험한 느낌 및 감정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즉, 기부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유익(예: 세금공제혜택, 자료획득, 인맥 등)정도를 묻는 내용이다. 척도 내용은 Sargeant 외(2005: 9)의 ‘정서적, 가시적, 가족적 효용감’ 척도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정서적 효용감 척도 및 가시적 효용감 척도는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정서적효용감 척도는 삶의 활기, 잘한 일, 죄책감 면책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726 이었다. ‘가시적효용감’ 척도는 주변인정, 자기체면, 공제혜택, 각종 자료제공 등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한 내적 일치도는 .628 이었다.

(3) 자기수용감

'자기수용감'은 자기의 장점, 단점, 신체적 조건, 느낌, 생각,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이수연, 1999: 5; Powell, 1969; 이정민, 2009: 17에서 재인용). '자기수용감'(self-acceptance) 척도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과만족도, 자부심, 본인의 성격인정, 실수에 대한 관용, 과거에 대한 만족, 지인과의 비교만족 등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Ryff와 Keyes(1995)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척도(PWBS)의 6개 차원(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중 자기수용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859 로 측정되었다.

(4) 기관신뢰도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하 '기관신뢰') 척도는 기부자가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목적·명분, 윤리, 절차·과정, 후원금 사용용도, 양심·정직, 후원금 조성방법 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Sargeant 외(2005: 11)의 '신뢰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39 로 매우 높은 신뢰도가 측정되었다.

(5) 경제형편

경제형편은 이항변수(0, 1)이다. '꽤 어려움'에서 '조금 어려움'까지는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 (0)으로, 경제형편이 '웬만함'에서 '여유 있음'까지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1)으로 분류하였다.

4)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5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실시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합성신뢰도(C.R.R: Construct reliability or composite reliability)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정서적효용감	가시적효용감	기관신뢰	지속의도	자기수용
개념/합성 신뢰도	.935	.950	.994	.989	.990
집중/수렴타당도(A. V. E)	.836	.831	.965	.971	.941

5개 척도의 평균분산추출, 개념 신뢰도 혹은 합성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A.V.E 값 및 C.R.R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V.E 값은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C.R.R 값은

0.7 이상(Bagozzi and Yi, 1988)이어야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개 척도는 집중/수렴 타당성과 높은 개념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5)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경로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기부효용(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고, 기관신뢰도와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를 각각 파악하기 위해서 Amos 19와 Mplus 6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로는 절대 적합지수인 RMSEA와 상대적합지수인 CFI, TLI를 제시하였다. 조절변수인 '경제형편'에 따른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위하여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고, 전진방법을 이용한 경로 계수 차이검증(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test)을 토대로 최적 구조동일화모형을 찾았다. 최적모형에 근거하여 집단별 경로계수차이결과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표준오차를 수정하고, 편향(bias)이 수정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모형 내 다중매개가 존재하여, 개별매개효과 검증이 용이한 Mplus 6를 이용하였다. 경제형편수준에 따른 각 주요 잠재변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하기위한 절편동일성을 검정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

응답자들은 여성이 53.6%(598명), 남성 46.4%(518명)이다. '연령대'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29.7%, 331명)와 50대(31.1%, 347명)가 많다. 30대는 18.4%(205명)이며, 30대 미만은 12.2%(136명)이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68.9%(789명)로 가장 많고, 고졸이 24.6%(275명)이며, 중학교 이하 학력(72명)인 경우는 6.5%에 불과하다. '경제형편'에 대해서는 '꽤 어렵거나'(3.3%, 37명), '여유가 있다'(6.5%, 73명)라고 응답한 경우는 아주 적고, '웬만하다'라고 대답한 경우(66%, 737명)가 많았다. '월 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7.1%(30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3.9%, 267명)이다.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약 36%가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기간'은 1년에서 3년 미만(23.7%, 26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년 미만(17.8%, 199명), 5~7년 미만(12%, 134명), 7~10년 미만(10.2%)순이었다. 기부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약 18.4%(208명) 정도 되었다. 기부참여 비율을 후원기간별로 살펴보면, 처음 기부를 시작하여 1~3년차가 23.7%로 가장 높고, 이후 기부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원자수가 계속 감소하다가 10년 이상 장기후원자는 다시 높은 비율(17.7%, 197명)로 나타나, 10년 내내 후원을 중단하지

않은 안정된 지속 기부자들이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면서 기부자로서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후원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약 57.7%였는데, 이는 조소라(1995)의 연구에서 보고한 70%보다 다소 낮고, 한국복지재단(1997)의 조사(30.4%)보다는 훨씬 높다.

2)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관측변수(22개)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2>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포(N=1116명)

	변수이름	Mean	SD	skew	c.r	kurtosis	c.r
정서적효용감	삶의 활기	3.53	.782	-.229	-3.117	.147	.963
	잘한 일	2.96	.988	.094	1.277	-.766	-5.240
	죄책감 면책	2.59	.934	.409	5.566	-.243	-1.686
가시적효용감	주변인정	3.05	.900	-.131	-1.788	-.194	-1.353
	자기체면	2.23	.861	.559	7.621	.290	1.981
	공제혜택	3.07	1.132	-.240	-3.264	-.737	-5.040
	자료혜택	3.29	.882	-.413	-5.621	.174	1.145
신뢰	목적 명분	4.17	.661	-.333	-4.537	-.218	-1.517
	윤리	4.17	.683	-.512	-6.980	.363	2.431
	절차 과정	4.13	.681	-.419	-5.705	.192	1.268
	사용 용도	4.23	.647	-.439	-5.976	.103	.665
	양심 정직	4.23	.663	-.595	-8.109	.762	5.140
	조성 방법	4.16	.670	-.482	-6.558	.442	2.967
기부지속의도	관계지속	3.11	.789	-.931	-12.684	.906	6.112
	기부계속	3.10	.778	-.894	-12.173	.896	6.043
	증액의도	2.44	.709	.138	1.886	-.210	-1.463
자기수용	결과만족	3.64	.838	-.875	-11.923	.734	4.944
	자부심	3.82	.706	-.588	-8.009	.842	5.681
	성격인정	3.33	.839	-.284	-3.867	-.443	-3.041
	실수관용	3.65	.725	-.722	-9.830	.730	4.922
	만족함	3.75	.689	-.776	-10.570	1.193	8.064
	호뭇함	3.56	.768	-.428	-5.830	.003	-.015
Multivariate					188.358		96.818

구조모형에서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크게 벗어날 경우, 표준오차 등의 모수추정치의 적합도가 정확하지 않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왜도는 -.931~.657로 절대값 2미만이며, 첨도는 -.766~1.193으로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각 변수의 일변량 정규분포성에 문제가 없었다(Curran et al., 1996: 16-29). 전체 표본(1116명)을 대상으로 각 주요변수들(척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기관신뢰감(4.181)과 자기수용감(3.626) 수준이 높은 편이다. 기관신뢰감 척도점수는 '그런 편'(4점) 보다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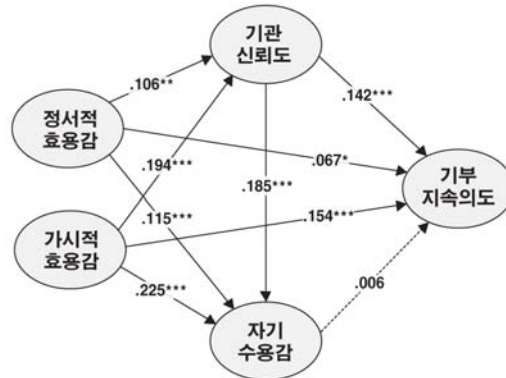
수준이고, 자기수용감은 '그저 그렇다'(3점)보다 높고 '그런 편'(4점)보다 다소 낮다. 정서적 효용감(3.029)은 '그저 그렇다'(3점) 수준을 약간 상회한 반면 가시적 효용감(2.904)은 '그저 그렇다'(3점) 수준을 약간 못 미치고 있어 정서적 효용감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기부지속의도'의 경우, 다른 척도들(5점)과 달리 4점 척도인데, 기부지속의도 척도의 평균값은 2.885이었다. 이 점수는 '기부지속의도'에 부정적으로 응답 한 점수(1~2점) 범위를 분명히 벗어났지만,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입장이 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점수대(3~4점)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 확인적 요인분석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에 대한 측정지표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461~.968)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고, 모형의 적합도($\chi^2=1423.771$, $df=199$, $p=.000$, $CFI=.908$, $TLI=.893$, $RMSEA=.074$)는 수용 가능한 범위로 확인되어,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이 측정모형의 경험적 자료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4) 전체모형 경로추정치 및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그림 2>, <표 3>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모형에 포함된 총 9개 경로 중에서,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경로(경로계수=.006, $cr=.179$, $p=.858$)만 제외한 나머지 8개 경로에서 모두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형 내 발생하는 4개의 매개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두 경로, '가시적효용감→기부지속의도'(.154)와 '정서적효용감→기부지속의도'(.067)는 모두 유의하였다. '가시적효용감→자기수용감'(.225)과 '정서적효용감→자기수용감'(.115), 이 두 경로도 유의하여, 기부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가시적효용감→기관신뢰도'(.194),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106) 경로도 유의성이 입증되어 기부효용감이 기관 신뢰도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기부지속의도(.142)와 자기수용감(.185)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결과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부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선행연구(한지선, 2004; 김준희, 2009; 강철희 외, 2010; Uslaner, 2002; Sargeant and Jay, 2004; Bekkers, 2005; Sargeant and Woodliffe, 2007)와 일치한다.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 또는 자기수용감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4개의 경로에서 매개변수인 '기관신뢰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95%신뢰구간)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신뢰도는 '정서적효용감' 또는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매개하였다. '정서적효용감' 또는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 1116명)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직접효과				
기부지속의도←정서효용감	.067	.150	.072	2.100*
기부지속의도←가시효용감	.154	.249	.067	3.731***
기부지속의도←자기수용감	.006	.007	.042	.179
기부지속의도←기관신뢰도	.142	.193	.045	4.311***
자기수용감←정서효용감	.115	.215	.062	3.458***
자기수용감←가시효용감	.225	.304	.058	5.278***
자기수용감←기관신뢰도	.185	.211	.038	5.494***
기관신뢰도←정서효용감	.106	.174	.053	3.264**
기관신뢰도←가시효용감	.194	.230	.048	4.817***
간접효과			신뢰구간(하 상한값)	
지속의도←신뢰←정서효용	.016	.036	.014 ~ .077	
지속의도←신뢰←가시효용	.029	.047	.014 ~ .069	
수용감←신뢰←정서효용	.020	.037	.014 ~ .072	
수용감←신뢰←가시효용	.036	.048	.016 ~ .069	

총효과		
지속의도←정서적효용감	.083	.186
지속의도←가시적효용감	.183	.296
수용감←정서적효용감	.135	.252
수용감←가시적효용감	.261	.353

* : p<.05 ** : p<.01 *** : p<.001

<표 4> 전체모형 계수차이검증결과 유의미한 비교경로(N=1116명)

경로 1-8		1	2	3	4	5	6	7	8
1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	.000							
2	가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1.657	.000						
3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272	-1.525	.000					
4	정서적 효용감→기부지속의도	-.273	-1.684	-.492	.000				
5	가시적 효용감→기부지속의도	.880	-.658	.651	1.049	.000			
6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	.780	-1.063	.539	.929	-.249	.000		
7	정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519	-1.066	.290	.705	-.371	-.183	.000	
8	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556	-1.237	.305	.747	-.496	-.293	-.060	.000

모형에 포함된 유의한 8개 경로들의 추정치는 모두 상이하어 계수에 따른 차이가 예상되었지만, 계수차이검증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경로계수에 대한 계수차이 검증 없이 단순히 계수의 수학적 크기만으로 인과관계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전체표본의 분석결과는 개인기부자들의 '경제형편'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분석이 이루어졌다. 경제형편 수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 검증과 집단별로 정확한 계수 비교를 위해 최적 구조동일화모형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5) 경제형편수준별 분석

(1) 측정동일성 확인

개인기부자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형편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810명)과 저조한 집단(306명)간의 각 경로추정치 차이검증을 위하여,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먼저 기저모형의 적합도($\chi^2=1900.639$, $df=400$, $p=.000$, $TLI=.866$, $CFI=.884$, $RMSEA=.058$)를 확인한 결과 수용 가능한 범위임을 확인하고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chi^2=1922.826$, $df=417$, $p=.000$, $TLI=.871$, $CFI=.884$, $RMSEA=.057$)는 자유도 차이 17에서 임계치(27.59, $p<.05$ 수준)보다 카이제곱 차이값($\Delta\chi^2=22.187$)이 낮아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2) 경제형편 수준별 두 집단비교를 위한 구조동일화 모형

최적 구조화모형을 찾기 위해서 두 집단 간 경로추정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5> 경제수준별 두 집단분석을 위한 최적 구조동일화모형 검증

모형비교							
	χ^2	df	p	TLI	CFI	RMSEA	판정
기저모형	1900.639	400	.000	.866	.884	.058	
측정동일성	1922.866	417	.000	.871	.884	.057	
최적구조화 모형(1)	1922.926	418	.000	.872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2)	1923.193	419	.000	.872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3)	1923.552	420	.000	.872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4)	1924.201	421	.000	.873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5)	1924.901	422	.000	.873	.884	.057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6)	1926.184	423	.000	.873	.884	.056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7)	1928.058	424	.000	.874	.884	.056	채택
최적구조화 모형(8)	1932.633	425	.000	.874	.884	.056	기각

분석결과, 7단계에서 8단계로 가면서 카이제곱차이($\Delta\chi^2=4.575$)가 자유도 1일때 임계치인 3.84를 초과하여,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최적 구조화모형 결과에서 '가시적효용감→자기수용감'(t=2.388)과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t=-2.151) 경로에서만 경제수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경로추정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최적 구조화동일화모형의 단계별 경로계수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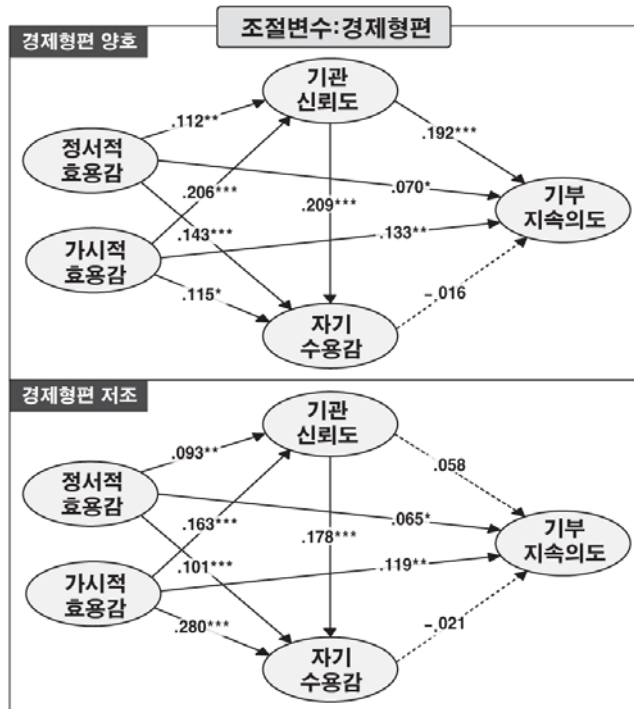
모형 단계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관 신뢰도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정서적 효용감	기관 신뢰도	자기 수용감
	→ 기관 신뢰도	→ 자기 수용감	→ 기부 지속성	→ 기부 지속성	→ 기부 지속성	→ 기관 신뢰도	→ 자기 수용감	→ 자기 수용감	→ 기부 지속성
1단계	.650	2.143	-1.885	1.459	-.561	-1.732	.268	.829	-.621
2단계	.655	2.233	-1.884	1.455	-.558	-1.738		.864	-.621
3단계	.655	2.254	-1.900	1.285		-1.725		.862	-.810
4단계		2.253	-1.910	1.293		-1.477		.836	-.811
5단계		2.211	-2.192	1.139		-1.474		.840	
6단계		2.353	-2.215	1.141		-1.377			
7단계		2.346	-2.049			-1.395			
8단계		2.388	-2.151						
9단계		2.390							

(3) 경제수준별 두 집단의 모형분석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은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 경로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형 내 설정한 8개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림3>). 정서적 효용감(.070*)과 가시적 효용감

(.133**)이 기부지속의도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정서적 효용감(.143***)과 가시적 효용감(.115*)은 각각 자기수용감에도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마쳤다. 또한 정서적 효용감(.112**)과 가시적 효용감(.206***) 모두 기관신뢰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양호한 기부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자기수용감(.209***)뿐만 아니라 기부지속의도(.192***)에도 모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내 설정한 네 경로 즉,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가시적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가시적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경로에서 '기관신뢰도'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경제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의도' 및 '자기수용감'도 각각 높아지는데, 이러한 효과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 '자기수용→기부지속의도'(-.021)와 '신뢰도→기부지속의도'(.058), 이 두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에서도 정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로 가는 경로(.065*)와 가시적 효용감(.119**)이 기부지속의도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정서적 효용감(.101***)과 가시적 효용감(.280***)은 자기수용감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경제형편 수준별 다집단분석 모형도

정서적 효용감(.093**)과 가시적 효용감(.163***)은 기관신뢰도에도 각각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쳤다. 그러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로 가는 경로(.054, p=.376)에서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에서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과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기관신뢰도의 매개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경제형편이 저조한 기부자들의 경우,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기부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관신뢰도가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경로(.178**)는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분석결과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도 주목된다.

<표 7> 경제형편 양호한 집단과 저조한 집단의 효과분해

(N=1116 명, 경제형편 양호집단=810명, 경제형편 저조집단=306명)

[직접효과]	비표준화추정치(SE)				표준화추정치	
	높음	SE	낮음	SE	높음	낮음
신뢰도←정서적효용감	.175**	.054	.175**	.054	.112	.093
신뢰도←가시적효용감	.227***	.047	.227***	.047	.206	.163
수용감←가시적효용감	.123*	.051	.442***	.127	.115	.280
수용감←정서적효용감	.217***	.056	.217***	.056	.143	.101
수용감←기관신뢰도	.203***	.035	.203***	.035	.209	.178
지속성←기관신뢰도	.269***	.054	.073	.077	.192	.058
지속성←정서적효용감	.154*	.072	.154*	.072	.070	.065
지속성←가시적효용감	.207**	.064	.207**	.064	.133	.119
지속성←수용감	-.023	.046	-.023	.046	-.016	-.021
[총효과]						
지속성←정서적효용감	.195		.161		.089	.068
지속성←가시적효용감	.264		.212		.170	.122
수용감←정서적효용감	.252		.252		.166	.118
수용감←가시적효용감	.169		.488		.158	.309
[간접효과]						
지속성←정서적효용감	.041		.007		.019	.003
지속성←가시적효용감	.057		.005		.037	.003
수용감←정서적효용감	.035		.035		.023	.017
수용감←가시적효용감	.046		.046		.043	.029
간접효과검증						
	높음		낮음			
지속←신뢰←정서효용	Lo .015	Hi .091	Lo -.013	Hi .052	(N.S)	
지속←신뢰←가시효용	Lo .025	Hi .106	Lo -.016	Hi .053	(N.S)	
수용←신뢰←정서효용	Lo .013	Hi .075	Lo .013	Hi .075		
수용←신뢰←가시효용	Lo .020	Hi .079	Lo .020	Hi .079		

* : p<.05 ** : p<.01 *** : p<.001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은 기부행위를 통해 얻는 효용감에서 정서적 효용감보다는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과 함께, 앞서 경제형편이 저조한 기부자들의 경우,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기부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과 '가시적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이 두 경로에서만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입증되어, 개인기부자들의 기관신뢰도가 향상될수록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이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증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경제수준과 관련 없이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부지속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단지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에서만 발견되어 기부자의 경제형편수준에 따른 행동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에서는, 기관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형편이 저조한 기부자의 경우,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정상황이 기부를 지속하는데 그 만큼 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경제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기부자들의 경우에는 '기관신뢰도'수준이 좋을수록 기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관신뢰도가 높을수록 가시적 효용 및 정서적 효용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를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어, 기관신뢰도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경제형편이 양호한 기부자들에게는, 특히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형편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부자의 경우에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기부자들에 비해서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가 훨씬 더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입증되었다(〈표 6〉). 따라서 개인 기부자들의 경제형편은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개인 기부자들의 가시적 효용감이 개인 기부자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조절해주고, 개인기부자들의 경제형편은 개인기부자들이 기관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4) 경제형편 수준별 두 집단간 잠재평균 차이분석

측정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의 비교에서 변화된 카이제곱값($\Delta\chi^2 = 185.929$)은 임계치($\Delta df = 22$, $\Delta\chi^2 = 33.92$)보다 높았고, 적합도도 상당히 나빠져서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었다. 잠재평균의 전제조건인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어 잠재평균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t-검증만을 실시하였다. 경제형편 수준별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기관신뢰도를 제외한 4개의 변수(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4개 변수 모두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잠재평균분석을 통한 보다 정확한 두 집단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 수준이 더 높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정서적, 가시적 효용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정호영(2006: 67)의 연구와 상치된다.

〈표 8〉 경제수준별 집단 간의 주요변인들의 평균값 차이

잠재변수	두 집단 차이(t-검증)		
	t(p)	경제형편 양호집단 평균	경제형편 저조집단 평균
정서적 효용감	-2.421(.016)	3.061	2.943
가시적 효용감	5.980(.000)	2.975	2.717
기부지속의도	-5.107(.000)	2.944	2.727
자기수용감	-8.882(.000)	3.729	3.351
기관신뢰도	-1.186(.236)	4.194	4.145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발견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설정한 9개의 경로('정서적 효용감→기부지속의도', '가시적 효용감→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가시적 효용감→자기수용감', '기관 신뢰도→자기수용감',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중에서 '자기수용감→기부지속의도' 경로 하나만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기관신뢰도'를 매개로 한 4개 경로('정서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도 유의하였다.

셋째, 전술한 모형분석결과는 '경제형편'이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를 배제한 분석결과이다. '경제형편'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의 직 간접효과를 어느 정도 유의하게 조절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형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던 분석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였지만,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에서 '기관 신뢰도→기부지속의도' 경로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의 경우에는 '기관신뢰도'를 매개로 한 4개 경로('정서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도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경로가 유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서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와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기부지속의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과 '가시적 효용감→(기관신뢰도)→자기수용감' 경로 또한 유의하였다.

넷째,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과 저조한 집단 간에 모형의 각 경로크기를 계수차이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해 본 결과,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280)이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115)보다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컸다.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192)의 경우에는 기관신뢰도가 높을수록, 기부지속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지만,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058), 기관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경제형편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입증되었다.

다섯째, 잠재평균분석은 선행조건(절편동일성, 모형적합도등)이 기각되었다. 대안으로, 측정변인들에 대한 두 집단 평균비교(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이 저조한 집단보다 정서

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 기부지속의도, 자기수용감, 기관신뢰도가 더 높았다. 비록 오차를 제거한 이론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닌 방법론적 한계점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양호한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기부행위를 통한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클수록 기부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에서만 유의하고,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은 경제수준이 양호한 집단에 비해서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높아, 기부자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기부행위에 대한 기부자의 행동특성을 유의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논의점과 시사점을 찾아보고, 사회복지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서적 효용감 뿐 만 아니라 가시적 효용감 모두 기부지속의도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헌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Sargent 외(2005)의 연구보고와, 정서적 효용감이 아닌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자들의 기부기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정호영(2006)의 연구결과들과 상충된다. 가시적 효용감(.154)과 정서적 효용감(.067)이 각각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경로추정치의 크기는 수학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로계수 차이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 모두 기부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측면이다. 둘째, 기부행위를 통해 체험한 정서적, 가시적 효용감은 기부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후원을 하려는 기부지속의도 뿐만 아니라,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부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 증진, 그리고 기부를 지속하게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기부효용감(정서적 효용감, 가시적 효용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조직의 후원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개인 기부자들의 가시적 효용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부기관은 개인 기부자들이 세금공제혜택, 유용한 자료 획득 등과 같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편익(benefit)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자들(Hollander, 1990; Glazer and Konrad, 1996; Harbaugh, 1998: 271)은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가시적인 효용감은 물질적(또는 물리적) 혜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부행위에 대한 가족을 포함한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인정, 체면상승 및 유지 등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력한 바 있다. 기부기관은 기부자 '개인'에만 초점을 두는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부자의 '의미 있는 타자들'도 개입대상으로 간주하는 확대된 시각이 필요하다.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활동에 대해서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기관을 돕는 개인기부자들의 친사회적 행위에 대한 알림 효과(signaling effect)가 보다 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의 홍보 전문가를 접촉하여 재능기부 형식 등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기관은 개인 기부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물품 등에 기관의 로고 등을 넣어 기념품으로 전달한다면, 기부기관을 홍보할 수 있고, 더불어 개인 기부자의 기부활동에 대한 '알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부행위가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좋은 평판을 받으면 기부를 지속하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후원담당자는 재능기부를 통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개인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물품도 가능한 물품기부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기부자 초대 및 각종 행사 등에도 기부자를 포함한 기부자의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부자가 처음 기부기관에 등록할 때, 간단한 설문조사 또는 면담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기부자의 욕구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기부자들은 이러한 알림효과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부자들의 정확한 사전욕구조사가 필요하다. 개인 기부자들이 온광효과(warm glow effect)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부기관은 기부를 통한 모금활동이 어떻게 의미 있게 클라이언트들을 돕고 있는지, 감동적인 성공사례를 찾아 그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 기부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기부동기 및 지속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기부기관의 사업의 결실과 의미를 잘 홍보하여, 개인기부자들에게 자긍심과 같은 심리적인 보상을 증진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관의 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한지선, 2004; 김준희, 2009; 강철희 외, 2010; Ulsander, 2002; Bekkers, 2005; Sargeant and Woodliffe, 2007)와 일치한다. 기관신뢰도는 기부지속의도뿐만 아니라, 개인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 및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관신뢰도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의 신뢰도는 기부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개인기부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서비스 업무강화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계획 및 연구 그리고 평가업무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부행위를 통해 경험하는 개인기부자들의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개인기부자의 자기수용감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개인기부자들을 기부자 또는 제공자로만 간주하지 않고 기부기관의 의미 있는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다. 후원기관은 모금한 복지재원으로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대상(클라이언트)만을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의 자기수용감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부자들도 기부기관의 원조 개입 대상자인 서비스 수혜자로 포함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후원사업의 개념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자기수용이 심리적 건강, 자기성장의 핵심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실천영역에서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면서 자기수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실천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향후 사회복지기관들은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단지 자

원을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자'만이 아닌, 기부행위를 통해 자기수용감이 증진되고, 자기성장과 심리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개인 기부자 모집 및 기부자 관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제형편이 저조한 집단의 경우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과 달리, 기관의 신뢰도가 기부지속의도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기부자의 경우, '기부지속여부'가 기관 신뢰도보다는 자신이 처한 경제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개인 및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기부지속 태도에 훨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오단이, 2007; 강철휘 외, 2010: 213), 기부중단의 주요 이유가 기부자의 재정상황이라고 지적한 선행연구결과(박종미, 1995; Sargeant and Jay, 2004)와도 부합한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는 기관 신뢰도의 매개효과는 없었던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기부자들의 경우, 기관신뢰도 수준이 기부지속의도에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드러났다. 기관 신뢰도는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에서는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경제형편이 양호한 집단의 경우, 정서적 효용감과 가시적 효용감은 비슷하게 자기수용감 증진에 정적 직접효과를 미치지만,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개인 기부자들의 경우, 가시적 효용감이 자기수용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형편이 저조한 경우, 기부활동을 통해 체험한 실제적인, 가시적인 편익을 많이 얻을수록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기수용감이 증진되는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하였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부행위를 통해 얻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편익에 의해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이 더 용이함을 시사해준다. 이는 내면의 보상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세금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에 이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특히 개인 기부자들의 '경제형편'을 고려한 '차별성'에 기반한 기부자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부활동이 개인의 자기성장 및 심리적 안녕에 매우 중요한 구성소인 '자기수용감' 증진에 크게 기여 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본 연구에서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형편'만을 단일 조절변수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사회계층변인들(교육, 직업 등)의 조절효과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부효용'이 '기관신뢰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부효용'과 '기관신뢰감'은 상호호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 '기관신뢰감'이 '기부효용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간과되어, 후속연구에는 경로설정을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설정해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기부자들이 체험하는 정서적 효용감 및 가시적 효용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에서는 간과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관의 특성을 기관 차원에서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기부자들의 특성과 함께, 각 해당 기부기관들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위계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0.
- 강철희·김유나·주희희, 2010,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205-235.
- 고이경, 2004, “기부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근령, 2000, “대기업사무직근로자들의 후원행동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마케팅믹스 중심의 모금 개발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나, 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기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희, 2009, “비영리기관 후원자의 관계지속의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8): 324-332.
- 김해숙, 2008,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임, 1996, “사회복지관의 후원자개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미, 1995,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은지, 2010, “사회복지조직 기부자의 충성도(Donor Loyalty)에 관한 연구 - 기부자의 인식요인과 조직의 기부자 관계관리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혜경, 2001, “후원노력과 후원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에 후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름다운 재단, 2012, 『국내 민간 공익 재단 기초연구』, 서울: 아름다운북.
- 오단이, 2007, “금전적 기부자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브랜드 가치를 적용한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혜진, 2002, “자선적 기부참여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치민, 2002, “사회복지기관 후원자의 후원지속기간과 후원노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위정순, 2003, “사회복지기관 후원자의 후원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수진, 2001, “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1999, “자기수용과 자기존중감 및 완벽주의 성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2009,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5, “후원자의 만족과 후원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후원자관리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명인, 1998, “사회복지기관의 일반후원자집단과 결연후원자집단의 후원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주, 2008, “비영리기관에 대한 개인기부자들의 기존경험만족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질의 매개적 역할과 상호호혜성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영, 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호·김미희, 2008, “기부중단자의 특성 및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241-266.
- 정호영, 2006, “사회복지시설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소라, 1995, “사회복지기관 후원자들의 후원행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김기범·강오순·김지영·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20.
- 최진균, 1991,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사업에 있어서 후원자관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영, 1999, “결연후원활동의 지속과 중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선, 2004, “지속적인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용진, 2011, “지중교방송 후원자의 기부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계품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brams, D., and Hogg, M. A., 1988, “Comments on the motivational status of self-esteem in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4): 317 - 334
- Andreoni, J., 1989,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447-1458.
- _____, 2001, “The economics of philanthropy”, 11369-11376,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edited by Smelser, N. J., and Baltes, P. B., London: Elsevier.
- Bagozzi, R. P., and Yi, Y., 1988, “On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 74-94.
- Bekkers, R., 2005, *Charity Begins at Home: How Socialization Experiences Influence Giving and Volunteering*, ARNOVA Annual Conference Washington DC.
- Burk, P., 2003, *Donor Centred Fundraising*, Cygnus Applied Research Inc/Burk and Associates Ltd, Chicago.
- Clary, E. G., and Snyder, M., 1991, “A functional analysis of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The case of volunteerism”,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19-148.
- Courtney, R., 2002, *Strategic Management for Voluntary Non-profit Organisations*, Routledge, London.
- Curran, P. J., West, S. G., and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ornell, C., and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Glazer, A., and Konrad, K. A., 1996, “A signaling explanation for char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 1019-1028.
- Haggberg, M., 1992, “Why donors give”, *Fund-Raising Management*, 23(2): 39-40.
- Harbaugh, W. T., 1998, “What do donation by?: A model of philanthropy based on prestige and warm glow”, *Journal of Public Economic*, 67(2): 269-284.
- Hosmer, L., 1995, “Trust: The connection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379 - 403.

- Hollander, H., 1990, "A social exchange approach to voluntary coop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0: 1157-1167.
- Maccines, D. L., 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 McCall, G. J., and Simmons, J. L., 1978, *Identities and Interactions: An Examination of Human Associations in Everyday Life*,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L. J., and Czepiel, J. A., 1984, "A marketing approach for customer retentio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 45-51.
- Rogers, C. R., and Dymond R. G., 1954,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Chicago, IL, U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yff, C. D., and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719-727.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t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argeant, A., 1999, "Charity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215-238.
- _____, 2001, "Relationship fundraising: How to keep donors loyal",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2(2): 177-192.
- Sargeant, A., Ford, J. B., and West, D. C., 2005, "Perceptual determinants of nonprofit giving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2): 155-165.
- Sargeant, A., and Jay, E., 2004, *Fundrais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 Sargeant, A., and Kaehler, J., 1998, *Returns on Fund-Raising Expenditures in the Voluntary Sector*, Working Paper 98/06, University of Exeter.
- Sargeant, A., and Woodlife, L., 2005, "The antecedents of donor commitment to voluntary organization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6(1): 61 - 78.
- _____, 2007, "Building donor loyalty: The antecedents and role of commitment in the context of charity giving", *Journal of Nonprofit and Public Sector Marketing*, 18(2): 47-68.
- Schervish, P. G., 1993,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independent sector: A research agenda for improving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giving and volunteering", *Voluntas*, 4(2): 223-232.
- Shabbir, H., Palihawadana, D., and Thwaites, D., 2007, "Determining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donor-perceived relationship quality: A dimension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Psychology & Marketing*, 24(3): 271 - 293.
- Shelley, L., and Polonsky, M. J., 2002, "Do charitable causes need to segment their current donor base on demographic factors? An Australian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1): 19-29.
- Shrout, P. E., and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ryker, S., 1968, "Identity salience and role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558-564.
- Tajfel, H., and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33: 47.
- Turner, J. C., 1981,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Cahiers de Psychologie Cognitive/Current Psychology of Cognition.
- _____,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ur*,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2), JAI Press, Greenwich, CT.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Study on the Effect of Donors' Utility on Their Intention for Donation Continuity Focusing on Private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Lee, Wonju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y viewing donor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s both givers and beneficiarie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continuity of donors' contributions and enhanced sense of satisfaction as a consequence of participating in donation activities.

The predominant concern of this study centers on: (1) the 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trust toward donee organization, self acceptance on the continuation of their donation; (2) the 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trust toward donee organizations on individuals' self-acceptance; (3) the 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on their trust toward a donee organization; (4) the in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self acceptance on two paths i.e. emotional utility→trust→self acceptance, and demonstrable utility→trust→self acceptance; (5) the indirect effects of individuals' individuals' trust toward donee organization on self acceptance on four paths i.e. emotional utility→trust→continuity of donation; demonstrable utility→trust→continuity of donation; emotional utility→trust→self-acceptance, and demonstrable utility→trust→self-acceptance; (6) the moderating effects of 'financial status' on the causal relationships in the prescribe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In order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status', multi-group analysis between each of the two groups were conducted.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among 1116 donors who had made charitable, monetary contributions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Daegu and Kyungpook province. Data was collected from 29 organiz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were employed. A variety of tests are conducted(metric invariance,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structural invariance, multi-group analysis, bias-corrected boot-strapping, latent mean

analysis including Cohen's effect test).

Key words: emotional utility, demonstrable utility, donor, donation, self-acceptance, trus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financial status.

[논문 접수일 : 13. 12. 09, 심사일 : 13. 12. 18, 게재 확정일 : 14. 02. 17]